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근처에 있는 장애인재활직업기술학교 반티에이 뿌리업 전기반 학생 마카라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화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극히 일부에게 돌아가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1코린 13,8)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 담화문 중 일부 발췌

4월 20일은 제 33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입니다. 해마다 장애인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은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느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으니깐요.

2012~13 신앙의 해 자선실천
IDO 제가 하겠습니다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희망을 꿈꾸게 해준 반티에이 뿌리업



“의사에게서 이제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3년전 25살의 나이에 레아씨는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녀는 휠체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가족을 도와서 일하기 위해 9학년(중학교 3학년)때 학교를 그만두고 봉재공장 노동자들에게 음식과 물건들을 팔아가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레아씨는 수도 프놈펜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 간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검진 후에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을 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매우 비쌌고 부작용의 위험도 있었기에 레아씨와 가족들은 수술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탐방에

있는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바탐방 재활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그 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내심, 활력에 고무되어 레아씨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나아지기 위해 얼마나 애써 노력하고 있는지 보았을 때, 나 자신에게 미안해졌고 더 노력해서 나아지고 싶다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대신 그녀는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바탐방에서 반티에이 뿌리업 기술학교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센터를 방문하고 재봉반 학생 명단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로부터 1년이 되어갑니다. 이곳 생활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레아씨의 시선은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 곳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저 자신을 도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캄보디아 반티에이 뿌리업 재봉반 레아씨(Reasa)



반티에이 뿌리업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어로 직역하면 ‘비둘기센터’ 즉, ‘평화센터’라는 의미입니다. 20여년에 걸친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장애뿐만 아니라 전쟁 및 지뢰 피해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예수회에서 만든 국제 NGO인 JSC(Jesuit Service Cambodia)가 1991년 **장애인 재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1~2년 과정의 다양한 직업기술을 배우는 학생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보급되고 있는 휠체어를 만드는 작업장의 숙련 기술자의 모습으로, 또 지역장애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사회복지사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장애와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6년부터 반티에이 뿌리업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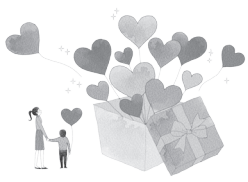
지구촌 곳곳에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 100원이 이들에게 꿈이 됩니다

정기후원: 홈페이지 www.obos.or.kr 가입신청/문의전화 02.774.3488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A R S : 060-700-1117(한통화 3천원)

사랑을 나누는 나눔가게 나눔기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기업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기업의 규모와 업종은 다르지만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음한몸 나눔가게·나눔기업!

2013년 4월 현재 50여곳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약 200여개 가게와 기업이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활동중입니다.



10호 나눔기업 (주)무원 NB 건축사사무소



42호 나눔가게 투썸플레이스 안국점

본부가 인증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기업! 사랑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루 100원모으기 캠페인 정기후원과 보내드리는 저금통에 나눔을 모아서 1년 동안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하시거나, 연간 1천만원 이상 기부를 하신 가게·기업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임을 인증하는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02.727.2299 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 게이트키퍼 교육생 모집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캐나다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의 하나인 safeTALK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 시: 2013년 5월 25일 오후 2시~5시(3시간)
- 대 상: 자살예방활동가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신 분
- 신청기간: 2013년 4월 22일(월) ~ 5월 5일(일) ※ 선착순 30명 마감
- 결과발표: 2013년 5월 8일 16:00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이메일: 3079@3079.or.kr 팩스: 02.2265.2955 홈페이지: www.3079.or.kr)
- 문 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지영 (02.318.3079)

게이트키퍼 교육은 자살을 생각하는 주변의 누군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safeTALK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한국가톨릭레드리본

HIV/AIDS 이런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감염인과 식기나 컵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화장실 변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침구류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피부접촉이나 포옹, 가벼운 키스를 할 때
 - AIDS환자를 간병할 때
 -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 / 구토 물을 제거할 때
 - 감염인과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사용할 때
 - 모기 등 벌레 물림으로 인하여
 - 감염인과 함께 운동하고 땀을 흘릴 때
- ※ 작은 실천과 지식이 HIV/AIDS 감염인들의 삶에 항상 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7,8

www.redribbon.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에 초대합니다. 5월 월례미사는 후원회 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회원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 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님께서는 많이 오셔서 신부님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 깊은 미사도 하시고, 더불어 수용자, 최고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05월 06일(월)/오전 8:40까지 가톨릭화후문
- 장소 청양 다락골 성지
- 접수 4월 26일(금)까지 마감, 회비는 10,000원. 당일납부.
- 준비물 걷기 편한 복장(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점심식사는 제공)
- 문의 02.921.509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30회 한자리축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될 행사를 개최합니다.

- 대상 서울대교구 본당 및 등록단체 시설 소속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 장소 04.28.(일) 11:00~15:00/과천 서울랜드
- 내용 기념미사 11:00, 장애인행사 및 체험활동 13:00
- 기타 장애체험행사는 4~5월 서울대교구 내 본당에서 열립니다. 본당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40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의
따뜻한 나눔!

지난 4월 6일~7일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에서 '하루 100원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루100원모으기운동과 장기기증운동에 330여명의 본당 신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임신부님과 모든 공동체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2013. 1 ~ 4)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서 예쁘게 디자인된 환편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환편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 | | | |
|--------------------------|-----------------------------|----------------------------|-------------------------------|
| 37호점 서울 강서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 43호점 서울 종로 안국동 투썸플레이스안국점 | 48호점 서울 노원 중계동 우리마음심리상담소 | 54호점 부산시 동래 수암동 타비스 에너자임 주식회사 |
| 38호점 대구시 동구 지모동 아슬심리치유센터 | 44호점 서울 광진 구의동 중곡4동 호프나라 | 49호점 서울 종로 광장시장 하층 삼성상회 | |
| 39호점 서울 영등포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45호점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이장우의 사랑하여 | 50호점 서울 종로 종로 5가 송월달월대상대리점 | 55호점 경북 구미 황상동 떡볶이카노 |
| 40호점 서울 중구 광희동 다모아 편의점 | 46호점 부산 동구 초량3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 51호점 서울 서초 서초동 느낌 좋은 집 | 56호점 경북 울진 북면 부구리 원자로식당 |
| 41호점 서울 금천 시흥동 로사나너더 | | 52호점 강원 강릉 포남동 포남세탁소 | 57호점 서울 마포 서교동 형광의 낙하, 눈 |
| 42호점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우리파부비비과 | 47호점 충남 당진 당진읍 상아치과 | 53호점 부산시 동래 수암동 시은사 | |

※ 현재 약 16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99

▲ 52,568 명

(2013년 4월 6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ARS 060-700-111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로 7522277
-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104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생애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용 요셉 (2012.03.16호) 정철영/母 김지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최다인 로사 (2010.03.06호) 최성규/母 이은은,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지을 (2012.03.06호) 박정호/母 임경화,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민찬 (2012.04.04호) 김규현/母 최하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노선우 (2012.04.13호) 노문수/母 김소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오운준 이레네 (2012.04.05호) 오영국/母 안성진, 36만5천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정성하 요셉 (2011.03.09호) 정용운/母 김재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시우 (2012.04.10호) 박정호/母 임미혜, 3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지영 아네스 (2012.03.07호) 김용봉/母 한주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류현우 (2012.03.08호) 류만형/母 김소연, 3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석 마이클 (1984.08.02호) 정우동/母 임현숙,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정윤석 가브리엘 (1988.10.12호) 정우동/母 임현숙,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유재현 엘마노 (1992.02.21호) 유원석/母 이혜련,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홍예주 (2012.01.23호) 홍석원/母 김영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리라 라파엘 (2012.04.02호) 김원태/母 김문경,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최이준 (2012.03.19호) 최수영/母 이영화,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서준 루카 (2012.02.27호) 이철/母 안지은,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채선규 가브리엘 (2012.02.24호) 채희택/母 조미아, 36만5천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손재민 그라시아 (2012.03.25호) 손정희/母 김유진, 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유윤우 (2012.03.14호) 유일상/母 정서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한나 (2012.12.21호) 여상구/母 이금진,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도현 아우구스티노 (2007.01.25호) 김석진/母 임영아, 5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주하 비르자다 (2012.04.03호) 김석진/母 임영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동연 (2012.01.21호) 김승수/母 금현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지희 글라라 (2012.02.15호) 김익근/母 김지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손지후 (2012.01.25호) 손찬희/母 김민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서현 (2012.03.19호) 박대성/母 박재은,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운우 안셀모 (2010.04.22호) 박영준/母 안영현, 2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신우 (2013.01.11호) 박영준/母 안영현, 2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조서윤 그라시아 (2012.03.20호) 조재범/母 도해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현 베네딕도 (2005.03.23호) 전준식/母 박화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전재현 요셉 (2010.07.20호) 전준식/母 박화영, 5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호) 김준문/母 정희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혜은 비아 (2012.03.14호) 이궁원/母 이은은, 1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하람 스테파니아 (2011.12.26호) 이석진/母 박민숙,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채현승 (2012.02.12호) 채찬목/母 이계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황서현 올리안나 (2012.04.05호) 황원태/母 홍민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소윤 요안나 (2012.03.26호) 박광진/母 박봉정, 130,326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유민찬 니콜라오 (2012.03.15호) 유우종/母 손영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강효민 클로리아 (2011.03.28호) 강현우/母 한은주,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호) 윤용덕/母 채민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유초아 (2012.02.24호) 유지민/母 유정화,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이수 (2013.01.29호) 김도현/母 문수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윤혜정 엔다 (2012.03.08호) 윤형준/母 양선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엄자유 에리트 (2012.01.13호) 엄정호/母 박시원, 10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김민형 (2011.09.25호) 김수원/母 김영혜, 30만원(자주친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수연 프란치스코 (2012.03.24호) 김원기/母 한석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정이돈 프란치스코 (2012.04.01호) 정말성/母 이화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주환 바오로 (2007.11.19호) 이창훈/母 박윤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서준 요한 (2012.04.03호) 이창훈/母 박윤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

●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우리 454-005324-13-044 예금주(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